

일본 임금: 명목·실질 모두 플러스, 파트 시급은 가속했지만 기본급 가속은 판단 보류

2026.09.08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

한 줄 요약

일본 7월 매월근로통계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내급여가 여전히 3~4%대 상승을 유지하고 파트타임 시급 상승률이 두 통계 계열 모두에서 가속하면서,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논거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나왔다.

이번 발표에서 명목임금(현금급여총액)은 전년동월 대비 4.7% 늘어 6월 4.0%보다 확대됐고,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도 2.6% 증가해 6월 2.3%보다 늘었다(주거비 관련 항목을 제외한 기준으로는 2.4%). 다만 이 헤드라인 수치는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집계하는 '벤치마크' 계열의 결과이며, 매년 표본이 일부 바뀌는 데서 오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사업장만 뽑아 비교하는 '공통사업소' 계열에서는 명목 총액 증가율이 2.8%로 6월 4.8%보다 오히려 크게 낮아졌다. 이 계열은 실질임금 수치를 별도로 공표하지 않아 물가를 뺀 값을 산출할 수 없고, 따라서 벤치마크의 실질 2.6%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

헤드라인 4.7% 가운데 전체 급여의 69.1%를 차지하는 정기급여가 2.83%포인트를, 나머지 30.9%를 차지하는 여름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1.95%포인트를 각각 밀어올렸다. 상여금 기여가 4월에 가깝지만 정기급여 기여가 여전히 더 크므로, 이번 임금 상승을 '상여금이 지배한 결과'로 단정하기는 어렵다. 더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급인 소정내급여는 벤치마크 기준 4.1%, 공통사업소 기준으로도 3.0%로 두 계열 모두 3% 이상을 유지했다.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소정내급여는 벤치마크 기준 5.7%(6월 4.4%), 공통사업소 기준 5.4%(6월 3.4%)로 두 계열이 동시에 가속한, 이번 발표에서 유일하게 계열 간 충돌이 없는 신호였다. 시간당 단가 상승은 되돌려지기 어렵고 서비스 물가로 전가되는 경로가 가장 직접적이라는 점에서, 이 부분은 추가 금리 인상 논거를 실질적으로 보강한다.

다만 후생노동성이 기본급 인상(베이스업)의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힌 일반노동자 소정내급여에서는 벤치마크가 3.7%에서 3.9%로 오히려 가속한 반면, 공통사업소는 2.9%에서 2.7%로 감속해 방향이 정반대로 갈렸다. 표본 구성이 부분적으로 바뀐 시점이 겹쳐 있어 구성 변화로 인한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은 공통사업소로 볼 수 있지만, 이 계열은 폐업하거나 신설된 사업장이 빠지는 생존 편의가 있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. 이 때문에 이번 자료로는 임금 수준이 플러스라는 점(소정내 기준 2.7~4.1%)은 확인할 수 있어도, '기본급 인상 모멘텀이 가속하고 있다'는 판정까지는 내리기 어렵다.

실질임금 개선의 원천은 물가 둔화가 아니라 명목임금 가속이라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. 물가 상승률(디플레이터)은 오히려 1.7%에서 2.0%로(주거비 관련 항목 제외 기준으로는 1.9%에서 2.2%로) 가속해



실질임금에는 불리하게 작용했고, 그럼에도 실질임금이 개선된 것은 명목임금 가속폭이 물가 가속폭보다 컸기 때문이다. 이번 명목임금 가속에는 여름 상여금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상당 부분 섞여 있어, 이 부분이 8월 이후 사라지면 구매력 개선의 지속성을 낙관하기는 이르다.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총액 증가율(4.8%)이 시간당 임금 증가율(5.7%)보다 낮았는데, 이는 근로시간이 오히려 줄어 단가 상승분의 일부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— 근로시간 증가가 총액을 밀어올렸다는 해석은 성립하지 않는다.

종합하면 이번 자료는 일본은행의 매파적 스탠스를 흔들 요인은 아니다. 소정내급여가 두 계열 모두 3% 이상을 유지하고 파트 시급이 동시에 가속한 점은 임금-물가 선순환이 유지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. 다만 헤드라인 4.7%를 그대로 인상 논거로 인용하는 것은 상여금과 표본효과가 이중으로 반영돼 과장된 해석이며, 공통사업소 총액이 명목 2.8%로 낮게 나온 점을 근거로 '임금 상승세가 고원에서 횡보하고 있다'는 해석이 확산되면 최근의 단기금리 인상 기대에 대한 되돌림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.

다음 판별점은 9월 28일 발표되는 7월분 확정치와, 여름 상여금 영향이 빠지는 8월분 소정내급여다. 확정치에서 상향 개정이 상여금이 아니라 소정내급여 쪽에 집중된다면 벤치마크가 보여준 가속 신호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고, 8월 소정내급여에서 공통사업소가 3.0% 아래로 내려간다면 '고수준 유지'라는 현재 판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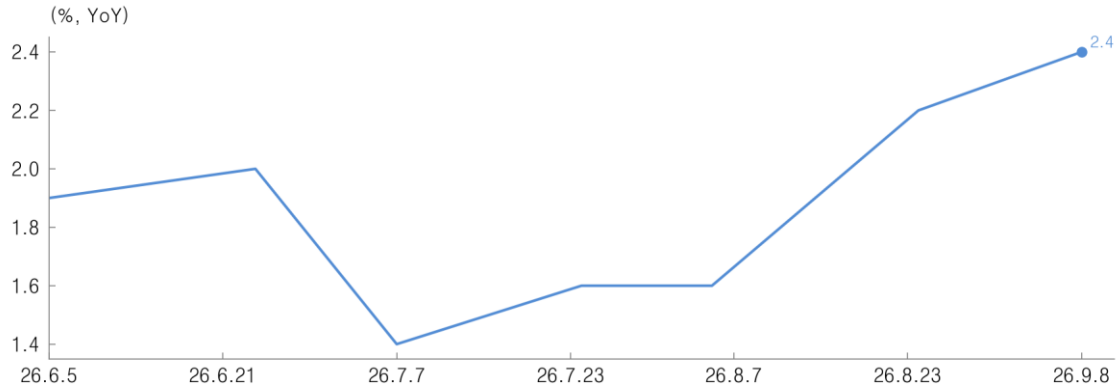
과거와 비교 (같은 분류 최근 분석)	
발행일	핵심 메시지
2026-09-08 (이번)	7 월 일본 매월근로통계(후생노동성)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모두 플러스로 나타나며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논거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나왔다.
2026-08-24	일본 6 월 매월근로통계 확보치에서 명목 현금급여총액은 전년동월비 4.0%로 속보치 3.4%에서 큰 폭 상향됐고 실질임금도 2.2~2.3%로 개선됐지만, 이 가속의 절반 이상은 여름 상여금 지급에 따른 일시적 효과다. 임금의 기조를 보여주는 소정내급여(기본급 성격의 정기임금)는 계열에 따라 3.0%에서 3.5% 사이에서 완만하게 가속하고 있어, 일본은행의 추
2026-08-05	일본 6 월 매월근로통계(후생노동성)에서 명목 현금급여총액은 전년동월비 3.4%로 전월보다 소폭 가속했고 실질임금도 플러스를 유지했지만, 6 월은 여름 상여금이 크게 반영되는 달인 만큼 이 가속을 곧바로 임금 상승 흐름의 강화로 읽기는 이르다. 표본 편차를 제거한 공통사업소 기준으로 보면 기조 임금인 소정내급여는 3.0% 안팎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아, 임금-물
2026-07-30	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최신 수치는 5 월 매월근로통계(일본 후생노동성의 매월근로통계조사) 확보치다. 6 월 속보치는 8 월 초 발표 예정으로, 오늘 기준으로는 5 월 수치가 판단의 출발점이다.

일본 7 월 매월근로통계 — 명목·실질임금 및 계열별 비교

지표	이번 수치(전년동월비)	6 월 수치	맥락
현금급여총액(전산업, 벤치마크 계열)	4.7%	4.0%	헤드라인 명목임금, 6 월보다 확대
현금급여총액(공통사업소 계열)	2.8%	4.8%	동일 사업소만 비교하면 오히려 둔화
실질임금(현금급여총액, 소비자물가 종합 기준)	2.6%	2.3%	물가도 가속했으나 명목 가속폭이 더 커 개선
특별급여(상여, 벤치마크 계열)	6.3%	-	여름 상여 지급월, 헤드라인 기여는 크나 정기급여 기여가 더 큼
소정내급여(기본급, 벤치마크 계열)	4.1%	3.4%	정기승급 포함 기본급, 3%대 이상 유지
소정내급여(기본급, 공통사업소 계열)	3.0%	-	표본 차이 있어도 3%대 유지
일반노동자 소정내급여(벤치마크 계열)	3.9%	3.7%	베이스업 반영 지표, 벤치마크 기준은 가속
일반노동자 소정내급여(공통사업소 계열)	2.7%	2.9%	동일 지표가 공통사업소 기준으로는 감속, 방향 상충
파트타임 시간당 소정내급여(벤치마크 계열)	5.7%	4.4%	시급 자체 상승, 되돌리기 어려운 신호
파트타임 소정내급여 총액(공통사업소 계열)	5.4%	3.4%	공통사업소는 시간당 급여 미공표, 총액 기준 수치(개념 다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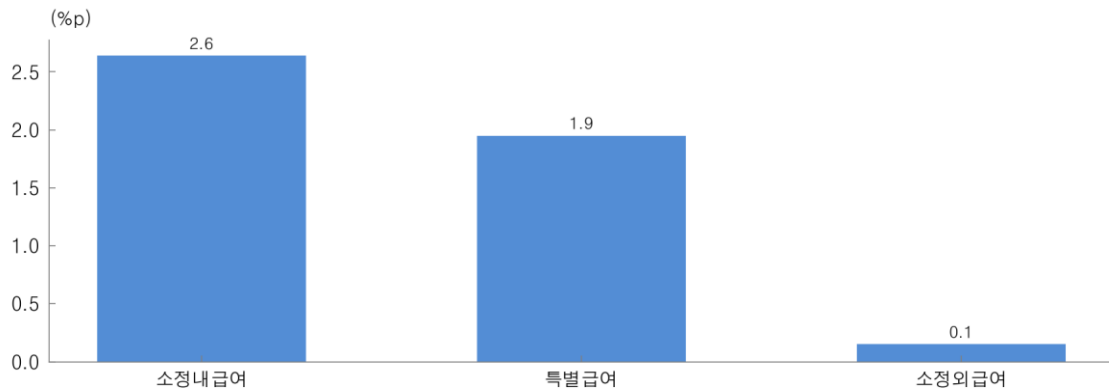
핵심 수치	
지표	값
실질임금 전년대비(%)	2.4
현금급여총액 전년대비(%)	4.7

일본 임금 (毎月勤労統計・현금급여) — real wage 최근 발표 추이 (발표일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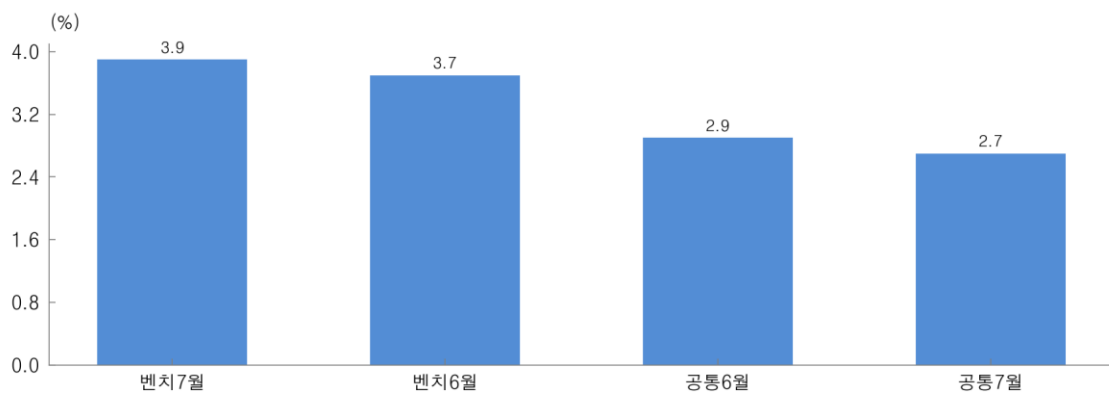
자료: 발표기관 보도자료(하우스 측적)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7월 명목임금 헤드라인 4.7%p 기여도 분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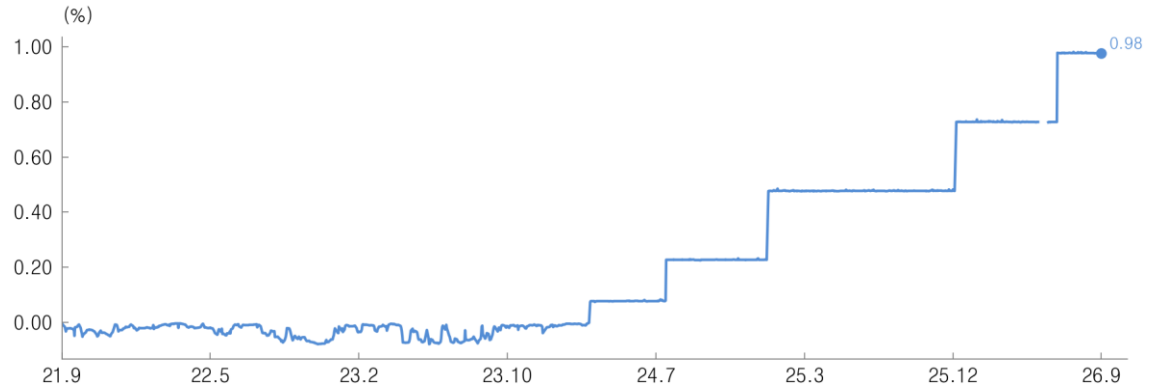
자료: 발표기관 보도자료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일반노동자 소정내급여: 베이스업 반영 지표의 방향 엇갈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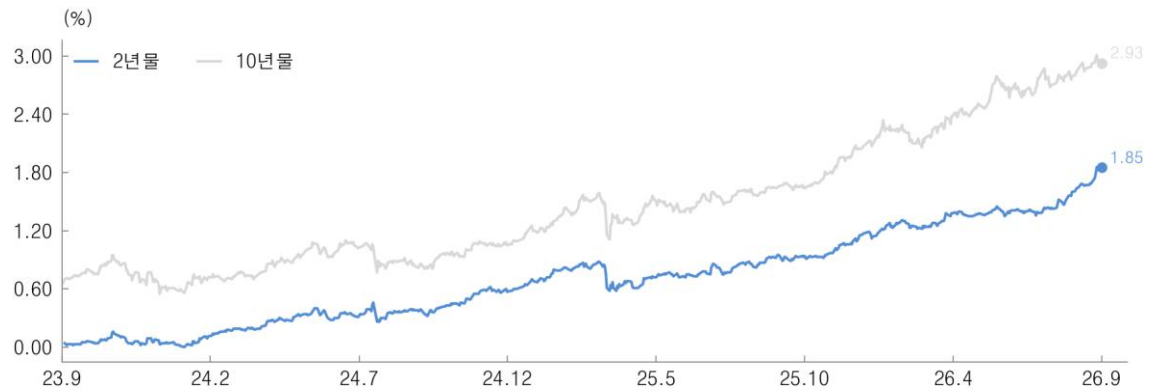
자료: 발표기관 보도자료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일본 무담보콜 익일물 금리 5 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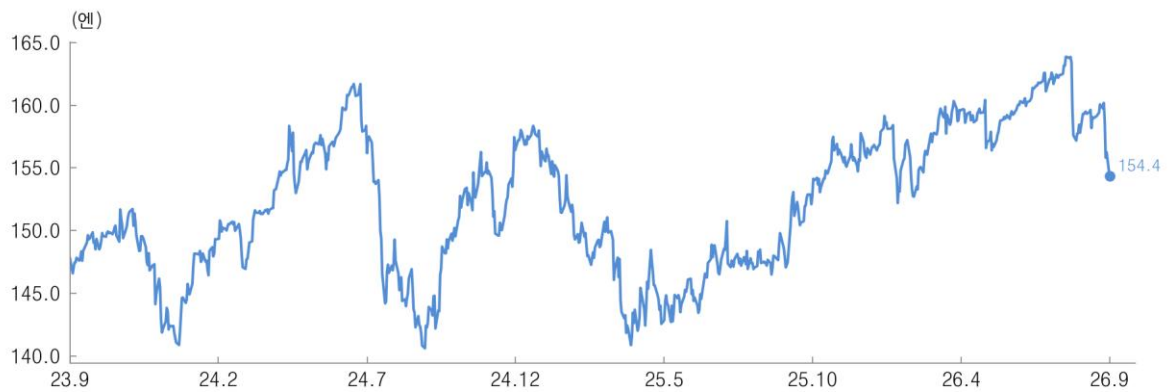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은행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일본 국채금리 (2 년·10 년) 3 년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엔/달러 환율 3 년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